



군산시는 관내 농업협동조합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농협, 로컬푸드 활성화 '의기투합'

MOU 체결 출하자 교육 추진
농산물 안전성 품질관리 온힘

군산시는 관내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산시에서 직매장 출하자 교육 통합관리, 로컬푸드 출하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 사항을 동일 적용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 수료자는 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모든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직매장별로 출하약정계약을 체결 후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21년 11월 신규 출하농가 대상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에도 상·하반기 신규 출하농가 교육 외에 기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과 로컬푸드 인증 등의 교육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농협과 원활한 협력체계로 농업인이 로컬푸드를 이해하고 직매장의 농산물 출하 및 안전성 품질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립 순환농업을 위해 군산시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송기문 기자

jbskm@naver.com

전라매일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012면 지역

군산시 로컬푸드 활성화 노력 활발

시-농협, 업무협약 체결

출하 농식품 안전성 관리

출하자 교육 관리 등 협력

군산시는 지역 내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산시에서 직매장 출하자 교육 통합관리, 로컬푸드 출하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 사항을 동일 적용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 수료자는 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모든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직매장별로 출하약정계약을 체결 후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오는 11월 신규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에도 상·하반기 신규 출하농가 교육 외에 기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과 로컬푸드 인증 등

의 교육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농협과 원활한 협력체계로 농업인이 로컬푸드를 이해하고 직매장의 농산물 출하 및 안전성 품질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립 순환농업을 위해 군산시가 선도적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군산시, 로컬푸드 활성화 '어깨동무'

농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직매장 출하자 교육 등 협력키로

군산시가 관내 농업협동조합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산시에서 직매장 출하자 교육 통합관리, 로컬푸드 출하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 사항을 동일 적용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 수료자는 시 관내에서 운영

하는 로컬푸드 모든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직매장별로 출하약정계약을 체결 후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협약이 농협과 원활한 협력체계로 농업인이 로컬푸드를 이해하고 직매장의 농산물 출하 및 안전성 품질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립 순환농업을 위해 군산시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정일 기자

전주매일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관내 농협, 로컬푸드 활성 업무협약

군산시는 관내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산시에서 직매장 출하자 교육 통합관리, 로컬푸드 출하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 사항을 동일 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 수료자는 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모든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직매장별로 출하약정계약을 체결 후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21년 11월 신규 출하 농가 대상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에도 상·하반기 신규 출하농가 교육 외에 기존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과 로컬푸드 인증 등의 교육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기자

전북제일신문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007면 종합

전북중앙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010면 지역

로컬푸드 활성화 '한마음 한뜻'

군산시-농협,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는 관내 농업협동조합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산시에서 직매장 출하자 교육 통합관리, 로컬푸드 출하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 사항을 동일 적용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 수료자는 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모든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직매장별로 출하약정계약을 체결 후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오는 11월 신규 출하농가 대상 교육을 추진하고 2022년에도 상·하반기 신규 출하농가 교육 외에 기존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보수교육과 로컬푸드 인증 등의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협약이 농협과 원활한 협력체계로 농업인이 로컬푸드를 이해하고 직매장의 농산물 출하 및 안전성 품질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립 순환농업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허정찬 기자

군산시-8개농협, 로컬푸드 활성화 상호협력 협약 체결

군산시는 20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원예농협을 포함해 총 8곳의 농협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산시에서 직매장 출하자 교육 통합관리와 로컬푸드 출하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 사항을 동일 적용, 로컬

푸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다음 달에 신규 출하 농가 대상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출하농가 교육과 보수교육, 로컬푸드 인증 등의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민성원기자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 지역에서 소비하자”

군산시 민선 7기 ‘먹거리 전략’ 추진

군산시의 지역 농민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전략이 효용을 얻고 있다.

먹거리전략(Food Strategy)은 일반적으로 푸드플랜(Food Plan)으로 혼용돼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먹거리전략은 건강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취약계층과 함께 모든 시민에게 충분히 공급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먹거리는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생산해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선 7기 군산시 농업정책의 핵심은 지역 먹거리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급식시스템 구축 ▲군산에서 유통되는 먹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최소수준 이상의 안전기준 및 관리시스템 구축 ▲전북도의 시·군간 협력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및 유통체계 구축 등이다.

시는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지역 사회 중심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연계시켜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군산시 먹거리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군산 푸드플랜 전담부서 신설

농업의 범위를 생산에서 소비자의 발상으로 넓게 인식하고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먹거리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에서 농산물유통과를 먹거리정책과로 개편한 시는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지난 2019년 전국 97 지자체 중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2019~2022년)됐다.

또 푸드플랜 수립,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재단법인 군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2020년 9월 1일 재단 출범)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해 군산시가 출연한 먹거리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군산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다양한 먹거리가 존재하고, 이러한 지역농축수산물들을 원료로 가공하는 지역 내 많은 가공업체들이 있다.

그동안에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최저가 및 경쟁점입찰방식으로 공급돼 시민들이 먹는 먹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지만, 앞으로는 먹거리위임회(먹거리 시민 거버넌스)와 관련분야 지역업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산시 푸드플랜과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들이 안정성과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을 지역 순환방식으로 전환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의 공공급식을 환경친화적인 먹거리로

공공급식 분야에서는 지역 학교급식, 서술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은평구·영등포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전북도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물류교류에서 서부권 거점센터로서의 물류공급, 지역아동센터 급식, 어린이집, 유치원 친환경별곡공급 등 기존 관계시장은 물론, 관내 공공기관 급식시장



군산 시민들이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정을 보고 있다.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집중

경제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증대 기대

계획 및 지역화를 위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경로당 친환경농산물 공급사업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학생 및 시민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산대에서 사용하는 쌀을 지역의 친환경쌀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으며, 시 소속 53개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쌀을 친환경쌀로 전환하는 등 지역먹거리 공급의 집점에서 협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민들의 먹거리 접근성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육산농협 로컬, 군산농협 로컬, 재단법인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2년에는 2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추가로 건립된다.

이로써 관내 중소가족들은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게 되며, 시민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접근성이 확보돼 농업인과 소비자가

믿고 구입하는 건강한 먹거리 교류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또 물혜에는 군산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시 로컬푸드 지자체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로컬푸드직매장, 공공급식 등 로컬푸드 연계 농산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안전분석실을 운영해 안전품질 관리 검사를 하고 있으며, 2021년 8월말 기준으로 608명의 농업인이 로컬푸드 출하 및 안전성 교육을 이수하고, 180여 농가가 인증을 신청해 인증에 부여를 위한 토양과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내 먹거리 소비의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활용한 공유주방, 공유부엌, 로컬카페, 대화상 아카데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 농축수산물, 지역가공식품의 지역 내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요한 먹거리를 위한 기획생산

농산물의 품목별, 농가별 관리는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지역순환체계를 창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농산물의 특성상 생산, 유통, 저장 등에서 시기별로 품목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가관리를 기반으로 기획적으로 생산하고 관리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친환경농산물, 지자체인증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체계적인 기획생산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와 중심의 군산농업을 소외 및 시민들의 수요를 예측, 분석해 다양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생산돼 먹거리 지역화 70%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기획생산을 준비 중에 있다. 안정적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팜 도입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과학적인 재배방법 등을 도입해 진행하고 있다.

군산 지역 과일 및 과채류의 타시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생산기반 확대 및 농업인 육성책을 마련, 지역 내 생산기반 조성, 노지 채소 기계화 단지 조성 등 30ha 규모로 생산기반을 늘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다품목 생산농업인 1,000명을 육성해 기획생산을 통한 전략 작목 육성도 힘을 모으고 있다.

가공식품 주원료 지역화... 기업 육성 활성화

시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가공, 생산, 상품화작업을 통해 원료 지역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개발 및 식품분야 창업의 진입장벽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육성과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전통식품육성, 지역농식품지원회, 소규모 식품가공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으며, 농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농식품 창업과 지역 내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농부의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농업인들은 그 들이 생산한 지역 농산물을 딸기잼, 쌀조청, 쿠키 등 60여개의 다양한 제품으로 직접 가공

해 학교급식, 은평구·영등포구 도농상생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공급함으로써 농의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9년 9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농부의 식품공장)가 선정된 바 있다. 올해에 완공되는 농부의 식품공장 2공장이 가동되면 더 많은 농민이 지역 먹거리를 이용한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을 맞춤형으로 제조 공급할 계획으로 농촌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물러 맥아 및 수제맥주 산업화를 통해 지역농업과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수제맥주 산업도시로 육성하고자하는 꿈은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다. 국내 유일하게 맥주의 원료인 보리에서 맥아제조, 지역특산 수제맥주 양조까지 일관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맥주용 맥아 2종, 식혜용 엿기름 1종을 상용화 할 예정으로 맥주용 맥아 및 엿기름을 2,000톤 소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또 도시재생사업과 시 푸드플랜 정책의 협력으로 구 수협창고(해당로 149-24번지)를 리모델링한 ‘수제맥주체험관매장’ 오픈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수제 맥주의 도시브랜드 전략은 전국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으며, 수제맥주 체험관매장은 4개의 매장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각 사업장마다 군산맥아를 이용한 로컬수제맥주(라거, 에일, 휴단 등)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군산대표관광상품으로 수제맥주 브랜드 창출과 인지도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안보 강화

군산에서 쌀, 보리는 농업인과 농업의 자존감이다. 군산의 쌀, 보리는 전체농업소득의 30%이상을 차지한다.

시는 식량산업 경쟁력 도모를 위해 식량산업 5개년(2019~2023)종합계획을 수립해, 쌀 경쟁력제고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중심의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39억6,000만원을 투자해 시설장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논타작물 및 밭작물 생산기반을 위한 사업다각화로 식량작물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육구농협에서는 육구·육사 농민들과 캐리를 생산해 지역화하고 도시민들에 건강하고 다양한 식량작물 공급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식량사업분야 핵심과제인 지역농업 RDC 및 DCC를 통합해 공동법인인 설립하고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한 일관된 마케팅전략으로 생산량대비 70% 이상의 과잉 공급되는 쌀을 수도권 등에 공급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해 시민들이 고민하고,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정책들을 군산시 행정과 반영할 계획이다’면서 ‘시민들의 식생활 교육 및 소비자 조직화를 통해 2조7,000억원이 넘는 군산시 먹거리 경제시장에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가공업체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통해 지역경제 견인 역할을 물론,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허정현 기자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 지역에서 소비한다’ 군산시, 지역농민 중심 선순환 먹거리 전략 호응

군산시 지역 농민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전략이 효용을 얻고 있다.

먹거리전략(Food Strategy)은 일반적으로 푸드플랜(Food Plan)으로 혼용돼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먹거리전략은 건강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취약계층과 더불어 모든 시민에게 충분히 공급하고, 여기에 필요한 먹거리는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생산해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선 7기 군산시 농업정책의 핵심은 지역 먹거리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급식시스템 구축 ▲군산에서 유통되는 먹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최소수준 이상의 안전기준 및 관리시스템 구축 ▲전라북도과 사·군간 협력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및 유통체계 구축 등이다.

시는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연계시켜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군산시 먹거리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 모습.

■먹거리 전략(푸드플랜) 전담부서 신설

농업의 틈새를 생산에서 소비자의 밥상으로 넓게 인식하고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먹거리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에서 농산물유통과를 먹거리정책과로 개편한 시는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지난 2019년 전국 9개 지자체 중 푸드플랜 폐기 지원사업에 선정(2019~2022년)됐다.

또 푸드플랜 수립,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재단법인 군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2020.01. 재단 출범) 타당성 연구영역을 추진해 군산시가 출연한 먹거리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군산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다양한 먹거리가 존재하고, 이러한 지역농축수산물들을 원료로 가공하는, 지역 내 많은 가공업체들이 있다.

그동안에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최저가 및 가격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돼 우리 시민들이 먹는 먹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지만, 앞으로는, 먹거리위원회(먹거리 시민 거버넌스)와 관련분야 지역업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산시 푸드플랜과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들이 안전성과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의 흐름을 지역 순환방식으로 전환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급식을 지역의 환경친화적 먹거리로

공공급식 분야에서는 지역 학교급식, 사립유치원급식, 군공급식, 은평구·영동로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전라북도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물류교류에서 서부권 거점센터로서의 물류공급, 지역아동센터 급식, 어린이집, 유치원 친환경쌀 공급 등 기존 관제시장은 물론, 관내 공공기관 급식시장 개척 및 지역화를 위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또 일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사업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학생 및 시민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산대에서 사용하는 쌀을 지역의 친환경쌀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으며, 시 소속 513개 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쌀을 친환경쌀로 전환하는 등 지역먹거리 공급의 접점에서 협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민 접근성 확보 위한 로컬푸드 정책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옥산농협 로컬, 군산농협 로컬, 재단법인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2년에는 2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추가로 건립된다.

이로써 관내 중소가족농은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게 되며, 시민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접근성이 확보돼 농업인과 소비자가 믿고 구입하는 건강한 먹거리 교류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군산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시 로컬푸드 지자체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로컬푸드직매장, 공공급식 등 로컬푸드 연계 농산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안전분석실을 운영해 안전판



점관리 검사를 하고 있으며, 2021년 8월말 기준으로 608명의 농업인이 로컬푸드 출하 및 안전성 교육을 이수하고, 180여 농가가 인증을 신청해 인증제 부여를 위한 도양과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내 먹거리 소비의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활용한 공유주방, 공유부엌, 로컬카페, 대학생 아카데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 농축수산물, 지역가공식품의 지역 내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요한 먹거리를 위한 기획생산

농산물의 품목별, 농가별 관리는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지역순환체계를 창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농산물의 특성상 생산, 유통, 저장 등에서 시기별로 품목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가관리를 기반으로 기획적으로 생산하고 관리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친환경농산물, 지자체인증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체계적인 기획생산체계를 구축으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와 중심의 군산농업을 소비처 및 시민들의 수요를 예측, 분석해 다양한 농산물이 지 내에서 생산돼 먹거리 지역에 70%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기획생산을 준비 중에 있다. 안정적 생산을 위한 토양관리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팜 도입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과학적인 재배방법 등을 도입해 진행하고 있다.

군산 지역 과일 및 과채류의 타시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생산기반 확대 및 농업인 육성책을 마련, 우리 지역 내 생산기반 조성, 노지 채소 기계화단지 조성 등 30ha 규모로 생산기반을 늘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다품목 생산농업인 1,000명을 육성해 기획생산을 통한 전략작목 육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역 농축산물 주원료로 식품가공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가공, 생산, 상품화작업을 통해 원료 지역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개발 및 식품분야 창업의 진입장벽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소규모 식품제조업 육성과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전통식품육성, 지역농식품지원회, 소규모 식품가공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으며, 농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농식품 창업과 지역 내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농부의 식품공장)'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농업인들은 그들이 생산한 지역 농산물을 말리기, 찌조림, 쿠키 등 60여 개의 다양한 제품으로 직접 가공해 학교급식, 은평구·영동로구 도농상생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공급함으로써 농외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9년 9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농부의 식품공장)'가 선정된 바 있다. 올해에 완공되는 농부의 식품공장 2공장이 가동되면 더 많은 농업인이 지역 먹거리를 이용한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을 맞춤형으로 제조 공급할 계획으로 농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맥아 및 수제맥주 산업화를 통해 지역 농업과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수제맥주 산업도시로 육성하고자하는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 유일하게 맥주의 원료인 보리에서 맥아제조, 지역특산 수제맥주 양조까지 일관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맥주용 맥아 2종, 식혜용 엿기름 1종을 상품화 할 예정으로 맥주용 맥아 및 엿기름을 2,000톤 소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시 푸드플랜 정책의 합작으로 구 수협창고(해면로 146-24번지)를 리모델링한 '수제맥주체험판매장' 오픈을 위해 막바

지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수제 맥주의 도시브랜드 전략은 전국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으며, 수제맥주 체험판매장은 4개의 매장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각 사업장마다 군산맥아를 이용한 로컬수제맥주(다과, 에일, 흑당 등) 제품을 선보일으로써, 군산대표관광 상품으로 수제맥주 브랜드 창출과 인지도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위한 식량산업 분야

군산에서 쌀, 보리는 농업인과 농업의 자존감이다. 군산의 쌀, 보리는 전제농업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시는 식량산업 경쟁력 도모를 위해 식량산업 5개년(2019~2023)종합계획을 수립해, 쌀 경쟁력 제고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중심의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3억6천만원을 투자해 시설장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논비적출 및 방식량작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다각화로 식량작물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육구농협에서는 육구·육서 농민들과 귀리를 생산해 지역화하고 도시민들에게 건강하고 다양한 식량작물 공급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식량산업분야 핵심과제인 지역농협 RPC 및 DSC를 통합해 공동법인을 설립하고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한 일관된 마케팅전략으로 생산량대비 70% 이상의 과잉 공급되는 쌀을 수도권 등에 공급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민이 협력하여 시민들이 고민하고,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정책들을 군산시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면서 "시민들의 식생활 교육 및 소비자 조직화를 통해 2조 7천억이 넘는 군산시 먹거리 경제시장에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가공업체들이 생산한 먹거리로 지역화를 이루어 지역경제 견인 역할은 물론,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